

★ 중앙교회 구역 모임(17-01)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 삶 나누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은 그들 동족의 절반에 가까운 6백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히틀러의 발굽에 밟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60명도 아닌 6백만 명을 일시에 잃어버린 유대 민족은 재기 불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기적적으로 옛 땅을 다시 찾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동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처참하게 파탄된 유대 민족을 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심어 주었던, 유럽의 어느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벽에 새겨진 시 한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가는 마당에서,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학대와 멸시 속에 비참히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끝없이 부르짖을 때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실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구출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꺾어질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소망을 가졌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절망에서 재기하여 역사의 고아가 되지 않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뛰어넘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생활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혼을 깨뜨리시고 정욕을 죽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골짜기를 지났고 야곱과 요셉과 모세도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눈부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소망, 그것만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승리하게 합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밭을 사라 (본문/ 예레미야 32:6-15)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밭을 사게 됩니다.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위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나눔1. 예레미야는 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32:2-5)

나눔2.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무슨 사이입니까?(32:7)

나눔3. 예레미야는 무엇을 합니까?(32:9)

나눔4. 밭을 사는 행위는 무엇을 예언합니까?(32:44)

3. 은혜나누기

1) 2017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 시대가 어려울수록 소망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기도합니다.

3) 중보기도

(1)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2)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소서.

(3) 1월 월삭 주제'중생'을 통해 믿음 안에서 더욱 깊고 더욱 넓은 영성을 함양토록 하옵소서

(4) 12월 생명운동캠페인"111운동"을 통해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교회사랑에 동참하게 하소서.

(5)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터키 안○민, 권○진 / 괌○만, 김○옥 선교사
현지의 영적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30-1월 "111" 운동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